

2015
10.3
-25

키큰세 여자

국립극단
SINCE 1950
가을마당



THREE
TALL
WOMEN
BY
EDWARD
ALBEE

작 에드워드 올비
번역 이경후
연출 이병훈

출연
박정자
손숙
김수연
허민형

교육자료

(재)국립극단에서 관객들의 효과적인 연극 감상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자료는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공연 관람 후 그룹 토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됨

시놉시스

A, B, C 그리고 한 여자의 인생

부유한 집안의 침실.

병약한 노인 A, 간병인 B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C가 있다. 자신의 자질구레한 기억들을 두서없이 늘어놓으며 즐거워하다가도 불현듯 눈물을 쏟는 A는 치매 증세를 보인다. 아흔 두 살인 A가 자신을 아흔 한 살이라고 말하자 B는 덤덤히 들어 넘기지만 C는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A의 이야기를 고분고분 듣고만 있기에 C는 아직 너무 젊다. C는 A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는 주저 없이 대립하기도 한다. A를 참아내지 못하는 C와 달리, B는 A를 위로하고 보살피면서도 조롱하는 능수능란한 중년의 모습을 보여준다.

A는 파편화되고 왜곡된 기억들을 들춰내며 자신의 육체적 쇠약함, 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떠나버린 아들을 원망한다. 가족과 자기를 둘러싼 모든 이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A는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다. 코마상태의 A 옆에 다시 나타난 A, B, C는 서로 다른 듯 같은 한 여자의 20대, 50대, 90대가 되어 삶과 죽음, 행복을 논한다.

주요 등장인물

A

죽음 앞에서 파편화된 삶을 기억하는 92세 여자

예전엔 키도 발도 컸지만 지금은 모두 쪼그라들어 버렸고, 기억력도 온전하지 못하다.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신체와 희미해져가는 기억력은 A를 점점 고통의 노인으로 몰아간다. 끝을 모르는 까탈스러움, 변덕 덕에 B에게는 조롱당하고, C와는 대립한다.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하며 까칠하게 굴지만, 원망했던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은 영락없이 늙고 외로운 할머니다. 2막에 이르면 뇌졸중으로 쓰러진 A의 90대 분신이 되어 달콤하기보단 씹싸름했던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어 B, C와 함께 인생의 조각들을 맞추어나간다.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분노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는 A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죽음과 마주하기 직전,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죽음의 순간임을 깨닫는다.

B

인생을 알지만, 용서는 아직 힘든 52세 여자

인생의 정점에서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세상엔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것도, 좋은 남자가 없다는 것도 알아버렸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B는 아직 세상을 모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C를 답답해하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A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듯 가볍게 받아치던 간병인 B는 A의 50대 분신이 되어 그 불행했던 삶의 정점에서 분노를 외친다. 떠나버린 아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은 B의 가슴 속에 크게 자리하고 있다.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자기 인생의 오점과도 같은 외도이야기도 성큼 꺼내놓는다. 불행한 과거와 불투명한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B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좋은 건 이제 안 겪어도 되는 게 많기 때문”이라는 50대 B의 이야기에서 작가의 부조리극적 세계관의 편린이 읽힌다.

C

황금빛 미래를 꿈꾸는 ‘착한’ 26세 여자

늙고 병들고 괴팍한 A를 이해하고 받아주기에 C는 너무 젊고 똑똑하다. A의 개념 없는 인종차별 발언에 즉각 발끈하던 C는 A의 20대 분신이 되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듣게 된다. 자신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던 C는 암울하기만 한 미래를 들려주는 A와 B처럼 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하지만,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그녀는 어머니의 주입식 가르침과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C는 어머니, 그리고 사회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착한여자’에 대한 막연한 의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생의 정점에 서있는 B와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직전인 A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C는 행복이란 앞으로 다가올 것임을 간절하게 믿고 싶어 한다.

키워드

삶과 죽음

1막에서는 90대, 50대와 20대의 서로 다른 세 사람이 끊임없이 투닥거리며 이야기를 나눈다. 소신을 굽히지 않는 당돌한 20대, 삶에 대한 이해와 노련미가 돋보이는 중년, 그리고 일부러 이불에 불일을 보는 까칠한 노년의 여인들이 옥신각신 주고받는 일상적인 대화에선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묻어 난다.

2막에서는 이 세 여자가 90대 노인의 분신으로 등장해 자신들의 인생을 함께 되돌아본다. 미래를 이야기 하는 20대, 현재에 귀 기울이는 50대를 넘어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90대의 생각과 시선이 엇갈리며 교차한다. 서로 다른 연령의 한 여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죽음'을 통해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삶의 유한함과 그로 인해 소중해지는 '삶'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마지막 순간', '지금' 그리고 '미래의 언젠가'로 정의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작가의 부조리적 세계관이 다시 확인된다.

여자의 일생

<키 큰 세 여자>는 서로의 과거이자 미래인 세 여자가 대화하며 들려주는 한 여자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다. 첫사랑에서부터 결혼, 외도 그리고 자식과의 절연에 이르기까지 다사다난했던 한 여자의 인생을 돌아본다. 20대의 그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도 있는 행복"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는다. 시간이 훌쩍 흘러 인생의 정점에 다다른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투명한 미래에 집착하지 않는다. "내 위치는 모든 걸 볼 수 있게 해줘. 인생 한중간 정점에 이렇게 서 있다는 건 분명히 가장 행복한 시간일거야."라는 그녀의 말에선 어느덧 삶의 연륜이 묻어난다. 삶을 겸허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중년을 넘어서자 소변조차 자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기억력도, 몸도 성치 않지만 90대의 노인은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죽음의 순간을 행복으로 인식하는 경지에 이른다. 한 여자의 일생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통해 사회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여성의 삶에 대한 편파적인 기준과 그로 인해 흔들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차 단단해져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특히, 보수적인 시대 속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A, B, C의 모습은 관객들로 하여금 여자로서 산다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극의 구성과 스타일

서로 다른 세 명의 여자가 환자와 간병인 그리고 변호사사무실에서 나온 직원으로 등장하는 1막의 인물과 배경은 매우 사실적이다. 반면, 2막에서는 세 여자가 90대 노인의 분신으로 등장해 한 사람의 현재와 과거, 미래를 오가며 인생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게 되면서 비현실적이고 판타지적인 상황으로 돌변한다. 한 여자의 삶이 다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탄탄하게 받쳐주는 독특한 구조만큼이나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도 매우 독창적이다.

올비는 <동물원 이야기>(1959)와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 하라?>(1962)를 통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사건을 그렸다. <미묘한 균형>(1966)은 이전 작품에서 그린 사실주의에 판타지적 표현주의가 더해진 작품으로 올비에게 첫 번째 풀리처상을 안겨주었다. <키 큰 세 여자>에서 작가는 1막의 사실주의와 2막의 표현주의를 명확하게 구분 지으며 보다 더 연극적인 스타일을 완성하였고, 이 작품으로 세 번째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자전적 이야기

에드워드 올비는 친부모에게 버려진 뒤 입양됐다. 양부모와 불화를 겪으며 10대 때 집을 나간 후 20여 년 간 양부모와 교류 없이 살았다. <키 큰 세 여자>는 1991년에 발표되었는데, 인생의 풍파와 굴곡을 겪은 작가가 비로소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던 시기에 쓴 것이다. 이 작품은 작가 자신과 양어머니의 오랜 세월을 걸친 불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모습까지도 그대로 반영되어 매우 자전적인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작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삶과 죽음, 행복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는 작품을 완성했다는 점이다. 올비는 작품 속에서 부모자식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의 모습을 통해 '인생은 죽음이 있기에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다.

작가/연출가 소개

작가 에드워드 올비 Edward Albee (1928 ~)

태어난 지 2주 만에 리드 올비와 그의 부인 프랜시스에게 입양된 에드워드 올비는 부유하지만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외할머니와 유모의 보살핌 속에 자라면서 유모를 통해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 고전문학을 접하게 된다. 학창시절부터 잡지에 글을 기고하는 등 글재주를 보였으나 형식적인 교육에 반발하여 여러 학교를 전전했다. 결국 대학에서 퇴학당한 후 양부모와 결별한 에드워드 올비는 50년대 뉴욕에서 다양한 직업을 거치며 온갖 장르의 글을 습작했다. 선배 작가 손톤 와일더 Thornton Wilder의 충고로 극작에 전념하면서 30세에 <동물원 이야기>를 완성하여 1960년 버넌 라이스 기념상을 수상했다. 그 후 <미묘한 균형>(1966), <바다풍경>(1975), <키 큰 세 여자>(1994)로 풀리처상을 3회 수상하였다. 올비의 작품에는 언제나 존재론적 고독과 소통력을 상실한 언어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으며 현대인과 현대사회에 대한 냉정한 비판정신을 드러낸다.

주요작품

동물원 이야기 ·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 하랴? · 미묘한 균형 · 바다풍경 · 키 큰 세 여자 외 다수

수상경력

- 1963 토니어워즈 최우수 극작 <누가 버지니아의 울프를 두려워 하랴? (Who's Afraid of Virginia Woolf?)>
- 1966 풀리처상 희곡부문 <미묘한 균형(A Delicate Balance)>
- 1975 풀리처상 희곡부문 <바다풍경(Seascape)>
- 1994 풀리처상 희곡부문 <키 큰 세 여자(Three Tall Women)>
- 1996 국가예술상
- 2002 토니어워즈 최우수 극작 <염소, 혹은 실비아는 누구인가? (The Goat, or Who is Sylvia?)>
- 2005 토니어워즈 평생공로상

연출가 이병훈 (1952 ~)

무대에서 살아있는 배우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는 연출가 이병훈은 1994년 이윤택, 윤광진과 함께 우리극연구소를 출범시켰고 2012년 창설된 국립극단의 차세대 연극인 스튜디오 소장을 역임했다. 텍스트의 정확한 분석과 표현을 중시하며, 배우를 통해 인물의 관념적인 심리가 관객들에게 명료하게 전달되는 데 중점을 둔다. 극도의 절제된 표현 속에 강렬함을 담아내는 감각적인 연출로 정평이 난 그는 연출가의 예술은 연습실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배우들의 동작과 발음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바로잡는 치열한 연습과정을 거친다. 2002년 한일합동공연 <강 건너 저편에>는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에 선정되는 동시에 일본의 아사히 무대예술상 대상을 수상했다. 2008년 <리어왕>에서는 담백하면서도 섬세한 표현과 미학적인 공간연출을 선보여 대한민국 연극상을 수상했고 2014년 국립극단의 <맥베스>에서는 원작이 가진 강렬함에 오늘의 현재성을 덧입히며 욕망의 표상인 맥베스를 현대인의 차가운 자화상으로 그려내어 큰 박수를 받았다.

주요작품

맥베스 · 손님 · 유랑극단 쇼팔로비치 · 맹진사댁 경사 · 리어왕 · 강 건너 저편에 · 농업소녀 · 홀스또메르 외 다수

수상경력

- 1989 제25회 백상예술대상 신인연출상 <노예와 사자>
- 1989 제26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연출상 <곶추 왕국>
- 1998 제34회 백상예술대상 연출상 <홀스또메르>
- 2002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3 <강 건너 저편에>
아사히 무대예술상 대상 <강 건너 저편에>
- 2008 대한민국 연극대상 <리어왕>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세계동 1번지 (재)국립극단
1 Seogyedong, Yongsan-gu, Seoul, Korea(140-827)

100-021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100-021)

Tel. 1644-2003